

“올 가을 열차타고 임실로 가요”

임실군, 코레일 용산역과 업무협약 체결, 열차관광객 유치 상호협력

“올 가을엔 열차타고 낭만 가득한 임실로 떠나볼까” 임실군은 지난 31일 군수실에서 심민 군수와 양광열 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레일 용산역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용산역은 옥정호 및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비롯한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열차 관광객 유치에 상호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용산역 및 열차여행센터에서는 올해 12월에 개최할 예정인 임실산타축제와 연계한 특별관광열차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열차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양광열 용산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다양한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열차관광객이 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은 민선 7기 옥정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오수의견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를 더욱 특화시켜 ‘관광임실’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군은 가을에 개최하는 국화꽃과 함께는 임실N치즈축제를 봄에도 열 계획이다. 임실치즈파크내에 장미원을 조성하여, 봄에는 장미꽃과 함께는 임실N치즈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봄과 가을에는 임실N치즈축제를 열고, 여름에 개최되는 아쿠아페스티벌과 겨울 산타축제 등 사계절 내내 축제의 고장 임실을 만들어 수년내에 500만 관광객대를 열 것임이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임실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필봉농약전수관 등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많다”며 “문화관광체육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임실N치즈축제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통해 열차 관광객들이 임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20개 기관·단체 등 시민 300여 명 참여

남원시는 지난 31일 다사랑 요양병원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민·관의 재난 대응능력 강화 및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를 가정해 실시됐으며,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민간기업과 단체, 시민체협단이 함께한 이날 훈련에서는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합동구조 활동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전훈련을 통해 더 편안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관촌면 맞춤형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 운영

임실군 관촌면에서는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이 지난 31일 관촌면 병인마을회관에서 주민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마음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촌면 맞춤형복지팀과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순남·배경환)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협력을 위해 보건의료원,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임실군기초푸드뱅크, 오수 금성안경원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 했다.

보건의료원은 한방진료와 구강검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들의 손 건강을 위한 손마사지를 실시했다.

임실군자원봉사센터는 방향제 만들기, 임실군기초푸드뱅크에서는 푸드물품 나눔행사를, 오수 금성안경원은 시력검사 및 돋보기안경 제작을 진행했다.

관촌면행복보장협의체에서는 행사 안내와 식사 제공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남원,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남원시는 11월 2일 용성초 체육관에서 남원시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인 Good Family!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시민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과 소통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족과 시민들 및 이환주 시장과 윤지홍 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이 함께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율리 사랑 뮤직 송 밴드와 글로벌 태권단의 특별공연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명랑체육대회, 노래·랩·댄스 등의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정보, 굿네이버스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과 영양정보 등 생활에 필요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조환희 여성가족과장은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평가 순창군, ‘우수기관 선정’ 표창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쾌거

순창군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개 시·군 지자체를 선정하는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지난해 31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 열린 2019년 의료급여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는 의료급여사업에 기여한 우수지자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사업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상배경에는 순창군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연장승인 심의 강화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요양병원 퇴원 후 재가·시설입소·집수리

사업·가사간병서비스 연계 등 복지효율을 높인 점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현재 군은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꾸준한 사례관리로, 부정 사각지대인 관외 부적정 장기입원자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장기입원자 심사연계와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의 대상자의 무절제한 의료서비스 남용을 관리·강화해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전체수급자 의료이용률과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급여 진료일수 및 진료비 감소로 6억 1천 8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

/순창=이양원 기자



(사)전국한우협회 임실지부는 지난 31일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사랑의 한우’를 전달했다.

전국한우협회 임실지부 ‘사랑의 한우 130kg’ 기탁

(사)전국한우협회 임실지부(지부장 서충석)는 지난 31일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사랑의 한우’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130kg의 불고기 및 국거리용 한우고기로 임실군은 전 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지역의 저소득층 95세대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한우 나눔 행사는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임실지부에서 주관했다.

한우협회원들이 조성한 한우 자조금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한우 나눔 행사를 하는 등 소외계층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과 연말연시 등을 기해 정기적으로 한우를 기탁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460여kg을 기탁해 130여 가구와 시설 등에 지원해 이웃사랑 나눔 실천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합동 위령제 순창 쌍치면 금평리 위령탑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합동 추모제가 지난 31일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위령탑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6.25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오전 11시에 시작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노홍래 순창부군수는 추모사에서 “6.25 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합동추모제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전후 세대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순창군유족회(회장 조후정)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희생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치매안심 권역 쉼터 운영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남원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금지면문화누리센터에서 주 5일 3시간동안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치매안심센터(620-7996/5493)에서만 운영해왔던 치매환자쉼터 운영을 읍·면지역으로 적극 확대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인월면행복센터(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에서 찾아가는 권역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는 금지면문화누리센터(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면지역의 치매환자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 이동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쉼터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택에서 권역 쉼터까지 송영서비스(택시 왕복운행)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증치매환자이며, 반짝활짝 뇌운동, 치매예방체조, 인지훈련 워크북, 웃음치료, 작업요법, 공예요법, 향기요법 등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